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3년 9월호

기획특집

한·중FTA대비 중국 축산업 현황과 대응전략

릴레이 인터뷰

황주홍 국회의원

현장르포

수의사 처방제 시행 그 후...

이슈

1.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2.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기획특집 03-05

한·중FTA대비 중국 축산업 현황과 대응전략

포커스 06-07

한우 마블링 오해와 진실 5

릴레이 인터뷰 08-09

FTA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황주홍 의원

현장르포 10-11

수익사처방제 시행 그 후...

이슈 12-14

1.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2.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KREI 축산관측 15

9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Information 16-19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추석선물 변천사

Guide 22

한우자가소비 안내

시식회 & 정책설명회 24

중국, 세계 3위의 쇠고기 생산·소비 시장

축산물=초민감품목 ‘양허제외 품목’ 포함해야 중국 측 ‘지역화’ 도입요구 더욱 거세질 듯

우리 고유의 축종이자 민족의 자존심인 한우. 한우산업이 가격하락과 사료값 상승,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칠레, 미국, 호주 등에 이어 중국과의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빠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국의 축산업 현황 및 한·중FTA 추진 상황과 함께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중국의 소산업 현황

중국은 쇠고기 생산 및 소비에서 세계 3위의 시장이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중국의 소 사육마릿수는 2010년 1억626만마리로 이중 육우가 63.4%, 젖소가 13.4%, 역용우가 23.2%를 차지하고 있다.

사육마릿수에 있어선 연간 1%대의 증감이 반복되면서 큰 변화가 없다.

쇠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8년 613만2,000톤이던 생산량이 2010년에는 653만1,000톤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중FTA를 우려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24배나 많은 규모다.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2009년 지육기준 539만 1,000톤으로 2000년 365만5,000톤과 비교하면 170만톤 가량이 늘었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역시 2009년 정육기준 2.7kg으로, 가격이 높아 돼지고기 30.9kg, 닭고기 8.2kg과 비교하면 적은편이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로 품질과 영양을 우선시하면서 쇠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은 대부분 호주로부터 이뤄지며, 2011년 905만1,000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보다 33.4%나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2008년 이후로 중단된 상황이다.

한·중FTA 추진상황

중국과의 FTA는 2012년 5월 14일 1차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7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양국은 FTA 협상을 추진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의 모델리티(틀)를 도출하는 1단계 모델리티 협상과 전면적인 협상 진행을 통해 포괄적인 FTA로 일괄타결하는 2단계 협상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양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상품 자유화 수준을 90%까지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 중국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 타결이 점쳐졌다.

한·중FTA 체결시 축산업 피해 규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최소 2,420억원에서 최대 2조3,58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미FTA 발효 10년 후에 예상되는 농업생산감소액의 2.4배 수준이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큰 데는 중국의 농축산물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고 소비패턴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동식물방역법상 중국산 신선 육류와 과일·과채류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전체적인 중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품목 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번 한·중FTA 체결로 이같은 수입규제조치가 해제된다면 피해액은 최대 3,24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품자유화 수준 90%까지 확대’ 한·중 공감대 형성

수입규제조치 해제되면 피해액 최대 2조3,585억원 예상

축산업 주요쟁점 ‘양허 제외’

축산업 부문에 있어 한·중FTA 협상의 주요쟁점사항으로는 축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라 꼽을 수 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 중국보다 국내산 축산물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지리적인 인접성과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중국산 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산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축산업이 붕괴될 경우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축산물을 초민감품목 즉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의 ‘지역화’ 도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화(Regionalization)는 WTO/SPS 협정문에 명시된 규정으로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병

해충 비발생 유지지역이 존재한다면 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따르면 중국은 34개의 성급 행정구역 중 21개 성에서 FMD(구제역), 10개 성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로의 수입은 열처리된 가공육만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자국 내에서 생산해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다. 따라서 한우를 비롯해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역화 인정은 반드시 막아야 할 사항이다.

실제 중국내에서 악성 가축질병 비발생지역인 길림성, 요녕성, 해남성, 사천성, 산둥성 등 5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생산물량은 185만 1,000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보다 6.7배나 많은 물량이다. ㉞

한·중 축산물 생산규모(2010년)

(단위 : 천톤-지육기준)

구분	중국(A)	한국(B)	A/B(배)
쇠고기	6,531	276	23.7
돼지고기	50,712	895	56.7
닭고기	165,610	623	265.8
계란	27,627	577	47.9
우유	37,480	2,073	18.1

한·중 쇠고기 생산비(kg당) 및 가격 비교

(단위 : 원, 배)

구분		한국(A)		중국(B)		A/B(배)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
쇠고기 (1kg)	생산비	4,330	8,970	564	2,186	7.7	4.1
	농가수취가격	5,370	9,317	759	2,634	7.1	3.5
	도매가격	7,687	13,388	1,379	4,952	5.6	2.7

※자료 : KREI, 한·중 축산물 수급현황과 과제(2012)

5. 한국인에겐 고혈압보다 당뇨가 문제

주선태 교수(경상대 축산학과, 필명: 필로)

※ 이 기고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작한 '한우고기 예찬' 중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연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한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식단을 보면 필로는 슬프다. 비만한 미국의 영양학이 채식공화국 대한민국의 식단을 더욱 채식위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수화물로 가득한 식단이 웰빙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우리 사회는 지방을 함유한 식품, 특히 동물성 지방을 함유한 식품은 건강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각종 현대 성인병을 유발하는 비만과 고혈압의 배후세력으로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을 지목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마블링이 많은 한우고기는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지나친 채식, 특히 곡물위주 식사가 더 위험

필로는 한국인은 비만한 미국사람들이 지방 위에 진하게 써놓은 주홍글씨를 지워야 한다고 믿는다. 아니, 반대로 채식국가 대한민국은 과다한 탄수화물의 섭취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채식, 특히 곡물 위주의 식사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혈압보다 무서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곡물에 기초한 식단은 전분과 당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소장은 채 소화시키지 못한 전분과 당을 대장으로 넘긴다. 이렇게 되면 대장에는 정상적이던

박테리아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생산된 발효물들은 다시 소장으로 넘어와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소화흡수 기능을 방해한다.

채식주의자들은 원래 인간은 육식동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아마도 채식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은 동물이어야만 설득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선사시대 유적들은 인간이 수렵과 채집으로 먹거리를 획득하였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처음부터 고기를 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몸집이 비슷한 다른 영장류들과 비교해 보면, 인간의 뇌는 2배 정도 큰 반면 소화기관은 60% 정도 짧다. 고기와 과실처럼 영양가가 농축된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뇌와 소화기관을 가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가 된 이래 육식을 금하고 곡채식 위주의 식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본격적인 농경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던 식단이 당과 전분이라는 단일 영양식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과거다. 곡물 위주의 식생활은 우리 조상들의 키와 체격을 작아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기에는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그 단백질과 미네랄의 대사작용에 필

수적인 지방이 들어있다. 하지만 곡물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다. 비록 단백질이 들어 있기는 해도 대부분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한 질이 낮은 것들이다. 그마저 소화하기 힘든 섬유소에 쌓여 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곡채식으로 식생활을 전환하면서 키와 체격이 작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서구식 식단의 문제는 '가공된 탄수화물식품'

인슐린 과다로 인한 혈관관련 질병은 고지혈증, 혈전, 고혈압, 심장병 등이고, 이와 연관된 질병들은 당뇨병, 암, 비만, 수면 무호흡증, 소화성 위궤양,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이 있다. 이 모든 질병은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을 하면 동물성 지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질병들로, 우리의 식단이 서구식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식 식단의 진실은 육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공된 탄수화물 식품들에 있다. 채식주의자들도 가공된 탄수화물 식품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채식을 권한다. 소위 가공된 단순당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곡물의 껍질을 벗기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형태의 섭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이든 단순이든 모든 탄수화물은 당일 뿐이다. 단지 당 분자가 하나냐 아니면 여러 개냐의 차이밖에 없다. 포도당은 분자가 하나인 단순당이고, 설탕이라고 부르는 수크로스는 분자 2개가 연결된 이당류다. 삼당류도 있고 사당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당류라고 부른다. 쌀, 밀가루, 콩, 감자 등이 모두 다당류다. 그런데 우리 몸은 다당류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탄수화물이든 모두 단당류로 분해하여 단순당으로 만든 후 흡수한다. 즉,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을 먹든 모두 단당류가 되어 흡수되고 혈액

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탄수화물 과도섭취에 기인한 당뇨 조심하라

그러므로 현재 채식의 열풍이 불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단은 잠재적으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식단이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이 자극을 받아 인슐린을 분비하고, 과다하게 분비되는 인슐린은 만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을 불러온다. 따라서 해결책은 단지 하나다. 원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맞는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

필로는 채식 위주의 탄수화물이 가득한 우리나라 식단에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우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다른 육류나 해산물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채식주의자들은 한우고기에 있는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비만이 되어 혈관 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위협한다. 많이 먹으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처럼 고기를 1년에 120kg 정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우고기를 1년에 겨우 4kg 정도 먹고 있다.

채식주의자들은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가공된 가짜 지방과 가짜 단백질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버터 대신 카놀라유로 만든 마가린을 먹고, 한우고기 대신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를 먹으면서 고혈압이 예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 가짜 지방이나 가짜 단백질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은 고혈압을 예방하지 못한다. 오히려 고혈압의 원인을 제공하는 당노를 부를 뿐이다. 채식공화국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에 기인한 당뇨라는 사실을 그들은 명심해야 한다. ㉞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FTA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까다로워 농가에 실질적 도움안돼...95%미만으로 완화

황주홍 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은 최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과 관련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과 비교해 95%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발동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있지만 발동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의원으로부터 FTA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농가의 혜택, FTA 관련 제도의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들어봤다.

FTA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배경은?

현행 FTA지원특별법은 FTA의 이행에 따라 지원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해 산출한 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됐는데, 모든 한우농가들은 법에 따라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진 부분의 90% 전부를 보전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한우는 24.4%, 송아지는 12.9% 반영했다. 수입기여도 미반영 시 직불금 총액이 2,017억원인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 무려 1,698억원이 줄어 31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한우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해 농가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번에는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는데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산물 평균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전직불제가 운용되는 10년간 지급요건을 충족해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무관세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인들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100분의 9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액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보상금 제도 현실화

생산비 대부분 차지하는 사료값 안정대책 내놓아야

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전부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FTA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세계 7대 무역대국으로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FTA 추진의 불가피성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되는 농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과정이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5조2,000억원의 농림예산을 감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어려운 농민에게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FTA로 인해 이익을 본 분야가 있으면 그중 일부는 반드시 FTA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4년부터 농산물 수출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대비하여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FTA이행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6,266억원이다. 내년부터 이 기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우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쌀과 함께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우산업이 지난 2011년 이후 깊은 수렁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FTA로 인한 수입육 증가, 사육두수 증가,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한우농가 대부분이 생산비도 못 건지는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눈앞에 닥친 축산농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육마릿수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 제도를 현실화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하며,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우농가도 '사육마릿수 감축 없이는 한우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한우의 고급화와 명품 브랜드화를 꾸준히 추진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수의사처방제 시행, 그 후...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내산 축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위해 실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지난 8월 2일 첫 시행돼 한달여가 지났다.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사용하는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는 시행초기 대상약품을 항생제, 호르몬제 등 97개 성분 1,100여 품목을 정하고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대상약품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첫 달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직접 경기도의 한 농가를 찾아가봤다.



만삭암소 질탈, 하필이면 공휴일

이제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은 얼마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마침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가족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만삭인 암소가 출산 과정에서 질탈이 난 것이다. 부랴부랴 농장으로 돌아와 수의사를 수소문했지만 공휴일에 일하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인을 통해 수의사를 불러 어렵게 처방을 받고 약품을 사서 치료를 받았다.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전 시행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될 상황까지 간 거죠. 사실 항생제를 투여 시 웬만한 경우는 거의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는 무조건 수의사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는 사무국장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만 해도 수의사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고양시 관내 수의사의 접근이 쉽도록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사무국장처럼 공휴일이나 한밤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를 부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르면 돈, 한번 오면 무조건 5만원

한우 농가의 경우는 수의사를 부를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부분 탈이 나는 경우는 식이성 설사인 경우로 수의사 처방전 시행으로 이때마다 수의사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의사가 한 번 오는데 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약품비만 들어가던 것이 수의사 출장비까지 무조건 5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전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는 것이 힘들죠.”



“한우 농가들에게서 수의사를 불러야 할 경우는 암소, 즉 번식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비육우의 경우 수의사를 부를 정도면 도태



공휴일·한밤중 위급상황 발생시 ‘아찔’
 번식우에서 다발...비육우는 수의사 부를 정도면 도태
 식이성 설사병 등 대부분 농가 아는병에도 수의사통해 항생제 처방
 생산비 올라가는 건 당연...농가 현실이해 아쉬워

한우는 식이성 설사가 많은데 아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수의사를 불러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의사 처방전이 본격 시행되기 이전, 필요한 약품 일년치를 미리 사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약품상에 처방전 시행에 포함되는 약품은 동이 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하려면 임신 6개월 안에 최소 수의사를 한 번은 불러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약값까지 최소 10만원은 송아지 생산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적자를 보는데 적자폭만 더 늘리는 상황인 거죠. 수의사처방전이 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

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농가의 현실을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폭을 늘리며 생계를 걱정하는 한우농가들에게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또 다른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㉞



인터뷰

하현재 고려동물병원 원장

“처방전 시행 포함약품 다 팔리는 기현상도 나타나 시행위한 철저한 준비·현장중심 정책시행 아쉬워”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아직까지는 농가나 수의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방제 시행에 포함되지 않은 약이 불티나게 팔린다거나 제도시행 전에 처방제 시행 포함약품이 다 팔리는 기현상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면들이 나오고 있죠.”

하현재 고려동물병원 원장은 수의사 처방제 시행이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막아서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큰 개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현장 적용에는 의문을 표했다.

“사실 농가들이 보유한 약품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처방제 시행으로 분명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 중심의 정책 시행이 아쉽습니다.”



가축분뇨법 ‘논란’ 선대책 마련 필요 대통령령으로 상향, 과도한 규제보다 규제정책이 우선 농가 생존과 직결...보다 신중히 처리해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축분뇨법) 공청회가 지난 8월 28일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 경남 진주)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가축분뇨법이 논란인 만큼 축산농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규제보다는 규제를...가축분뇨법 주요 쟁점사항

현재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목표이다. 전형을 환경부 유역총량과 사무관은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가축분뇨에 따른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수변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으로 포함하며, 분뇨 및 퇴·액비 관리 강화를 위해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조치 등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장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며,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 사용중지명령 위반 등에 따른 폐쇄명령 유예기간이 2년에서 3~5년으로 수정됐다. 또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

액은 종전대로 1억원으로 하되 가축사육두수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가축분뇨의 배출과 수집·운반, 처리를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시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박탈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분뇨법 개정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으로, FTA,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업이 최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정책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농가들은 개정안 적용 시 발생될 문제를 알리기 위해 소리를 높였다.

무허가 축사 해결방안 모색부터 우선돼야

전형을 사무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설명 후 각 계각층의 토론자가 단상에 올라와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을 밝혔다.

홍순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은 “무허가 축사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축사 및 배출시설 허가, 입지제한지역의 경우 축사 이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입지제한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식 충남 홍성군 환경지도담당은 “전자인수인

계 시스템의 도입은 찬성하나 농가 노령화를 감안해 쉽게 사용도록 해야 하며, 행정처분 중 과징금과 사용중지 명령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은 “축산농가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4,6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징금 한도액을 축산농가의 소득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축산을 하고 있는 유럽과 같이 정부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생균제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㉞

미니 인터뷰

한우농가 71.5%가 무허가 축사 범법자 전락 우려

“가축분뇨법이 일부 개정안이라고는 하지만 축산농가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해양투기 근절에 따른 보완시설을 충분히 했어야 했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규제나 단속강화는 사전적으로 했어야 했다. 4대강으로 맑은물, 깨끗한 환경 등은 부인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하지 않으나 최근 녹조현상에 따른 일명 ‘녹차라떼’가 축산분뇨만의 문제인가. 4대강의 문제를 정부는 축산농가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는 무허가가 71.5%로 전체 14만 농가 중 9만8,000호가 무허가축사인데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인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기존 시설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축사의 강판은 기존시설로 인정해줘야 한다. 또한 사육제한거리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많다.”

과징금 상한액 하향 조정 유예기간 1년 추간연장 검토

“가축분뇨법 개정은 무허가축사 폐쇄명령 유예기간 연장,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하향 조정,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이 주요 쟁점이다. 우선 유예기간 연장은 개정안이 3~5년인데 농가는 추가 2년을 요구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전국 50%농가가 무허가 미신고인데 연장은 난감하며 1년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 과징금 상한액 하향 조정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했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부분 농가가 5,000만원 이하에서 부과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전자인계제도로 인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구를 가다듬어 예방하겠다. 통신키 월 5,000원, 중량센서 대당 40만원 선인데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월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T/F 구성 및 수급조절협의회 역할 기대

한우가격하락, 사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절실해 한우협회를 비롯한 정부, 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한우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T/F팀이 구성됐다. 이에 한우산업 중요과제 도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연말까지 내용을 예정인 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에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로 한우전망을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박사는 소 사육마릿수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며 한우도매가격은 내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 박사는 과거 10년 전후의 주기로 왔던 한우수급 사이클이 앞으로는 전업화,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게 되면서 사이클의 주기는 더 짧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지정토론자인 영남대 권오욱 교수는 “한우산업은 사료값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조사료 공동재배 등이 필요하며 가격연동제 및 직매장 등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축협 강병무 조합장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논리보다는 한우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해 농업농촌의 버팀목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 임관빈

부회장은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한우정책 수립시

한우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을 포함한 사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중앙회 박인희 단장은 유일한 한우정책 공급처인 한우개량사업소를 활용해 수급 상황에 따라 정책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품질평가원 황도연 센터장은 “저등급은 건강식으로, 고급육은 맛으로 홍보해야 하며,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한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각인되고 있는데 정확한 연구를 통해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과학원 홍성구 부장은 한우농가들의 사양관리기술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팅트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과장은 토론회에서 “한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생산자는 물론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가는 적절한 수취가격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T/F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㉞

축 산 관 측

9월 한우수급 동향과 전망

공급량 증가로 9월 한우 1등급 평균도매가격 전년보다 하락 전망

추석 수요가 예상되나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1만4,582원)보다 낮은 1만3,500~1만4,500원(생체 485~521만원, 1등급 600kg기준)으로 전망된다. ㉸

♣ 가격동향

송아지 : 9~11월 수송아지(6~7개월령) 가격은 작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

▷ (암송아지) 마리당 1,030천원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

* ('13.7월)1,010천원 → (8월)1,011천원 → (9.2)1,132천원

▷ (수송아지) 마리당 170~190만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13.7월)1,827천원 → (8월)1,789천원 → (9.2)2,047천원

큰소 : 추석 수요가 예상되나 9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가격전망 : 9월(13,500~14,500원/kg, 485~521만원), 10월이후(12,500~13,500원 수준/kg)

◆ 육질 등급별 소득 추정(8월 도매가격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도매가격(원/kg)	가격(A)(600kg)	2012년 경영비(B)(600kg)	소득(A-B)
1++	17,032	6,101	4,630	1,471
1+	14,563	5,216		586
1	12,829	4,595		-35
2	10,058	3,603		-1,027
3	7,275	2,606		-2,024

◆ 한우 가격 및 출하동향(8월 기준) - 국내 소 도축 / 출하 현황 및 쇠고기 가격

(단위 : 원/kg)

구 분			평년 (’08~’12)	2012년		2013년		대비	
				7월(A)	8월(B)	7월(C)	8월(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일평균도축마릿수)			654,734 (2,480)	62,640 (2,847)	70,895 (3,223)	70,213 (3,053)	90,568 (4,313)	12.1 (7.2)	27.7 (33.8)
경매마릿수(마리) (일평균경매마릿수)			246,000 (932)	30,412 (1,382)	33,717 (1,533)	39,309 (1,709)	42,798 (2,038)	29.3 (23.7)	26.9 (32.9)
도매시장 경락가격 (농가수취가격)	평균		14,167 (5,076)	12,340 (4,420)	12,890 (4,617)	12,039 (4,312)	12,695 (4,547)	△2.4	△1.5
가축시장 거래가격	암소		4,442	3,406	3,243	3,202	3,356	△6.0	3.5
	송아지	암	1,983	1,138	986	1,010	1,011	△11.2	2.5
		수	2,124	1,791	1,653	1,827	1,789	2.0	8.2
한우 불고기(1등급/kg)			33,287	30,910	31,370	29,300	29,030	△5.2	△7.5
한우 등심(1등급/kg)			64,477	61,820	61,770	58,940	62,890	△4.7	1.8

한우농가 ‘한마당 축제’... 제12회 한우인의 날

9일부터 3일간 울산에서 성대히 개최



제12회 한우인의 날 및 제14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이 7,000여명의 한우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2회 한우인의 날 및 제14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 행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산 대하강 둔치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우인의 날은 ‘한우 농자천하지대본(韓牛農者天下之大本)’을 주제로 개최해 추석을 앞둔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의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한우산업 상황 속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한우농가들이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우협회 창립기념식에서는 장관상 및 우수지부, 우수회원 시상 및 감사패 등이 수여됐고,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의 축하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창립기념식은 한우희망풍선 날리기를 피날레로 마쳤고, 기념식 후 축하떡 절단 및 한우다문화가정 요리대회, 한우고기 시식 등이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이 기자재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또한 한우인들과 한우산업 종사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의 장인 기자재 전



기념식에서는 장관상(사진 위)을 비롯한 우수지부, 우수회원 시상 및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

시회도 열려 한우산업의 최신정보 및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올해 한우인의 날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열려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참가자 및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했다.㉔

시상자 및 지부 명단

	지역	성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경기 평택시지부	정홍대
	충북 제천시지부	권중팔
	경북 경주시지부	장상규
	울산시지회	김두경
우수지부	경기 강화군지부	강원 정선군지부
	충북 증평군지부	충남 청양군지부
	전북 익산시지부	전남 화순군지부
	경북 성주군지부	경북 청송군지부
	경남 밀양시지부	울산 남부지부
	제주 제주시지부	
우수회원	경기 시흥시	박경호
	강원도지회	김상민
	충북 단양군지부	허영옥
	충남 보령시지부	김일태
	전북 군산시지부	정윤섭
	전남 고흥군지부	김병희
	경북 봉화군지부	강용섭
	경북 영덕군지부	이찬석
	경남 의령군지부	박대신
	울산 북부지부	윤주보
	제주시지회	홍사진
감사패	충주시장 이종배	홈플러스
	롯데리아	롯데마트
	이마트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3) 25일 개최 역대 가장 빠른기간에 부스신청 마감, 박람회 기대감 고조



국내외 축산관련업체와 전국 양축농가, 소비자들이 만나는 ‘축산업 축제의 장’이 될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3)’가 오는 9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건강한 축산, 내일의 생명산업’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6월 28일 부스신청을 마감한 결과, 214개 업체 총 850여 개 부스로 역대 가장 빠른 기간에 부스가 마감돼 그 어느 때보다 업체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 또한 과거 일곱 번의 개최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대거 개선해 일찌감치 성공적인 개최가 점쳐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축산농가 방문율을 높이고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전국 축산인이 모일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 지원을 대폭 늘렸다. 수송차량을 과거 20여대에서 200여대로 증차하고, KTX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동대구역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 접객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운영사무국(02-574-0465, kistock2013@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3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성황리 끝내 한우자조금, 한우우수성 홍보위해 시식회 개최



2013년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소비자에게 행복을, 축산농가에게는 희망’을 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소비자에게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



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부대행사로 경품추첨 및 발골 정육쇼 등이 개최되어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페스티벌 기간동안 OX퀴즈,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를 유도했다. ☎

자조금 100원당 2,373원 효과 발생

2012년 축산자조금 성과분석 최종결과 보고

한우자조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0개월 동안 약 229억원의 TV광고비를 지출해 월 평균 약 263톤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자조금이 지출한 광고비 100원당 평균

2,373원의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현재 소 값이 하락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만약 한우자조금을 통한 광고홍보가 없었다면 농가소득 또한 지금보다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연도별 한우자조금 광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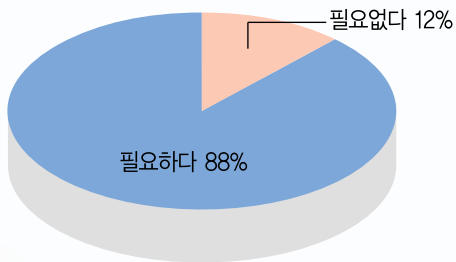
구분	광고비 지출액	월평균 추가수요 발생량	평균 한우가격(500g)	평균 투자 이익률
2008.1~2008.12(12개월)	53억원	273톤 (월평균 655두)	16,488원	20.38
2009.1~2009.12(12개월)	45억원	293톤 (월평균 703두)	17,052원	26.36
2010.1~2010.12(12개월)	46억원	269톤 (월평균 645두)	20,365원	28.87
2011.1~2011.12(12개월)	42억원	277톤 (월평균 664두)	16,412원	25.68
2012.1~2012.12(12개월)	42억원	290톤 (월평균 696두)	15,850원	25.97

▶ 2012년 소비자대상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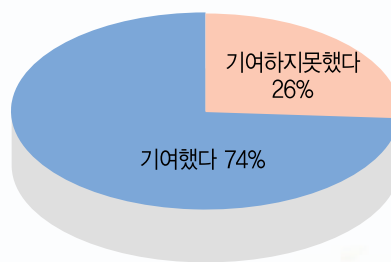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향력, 인지율,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한우자조금의 사업별 성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캠페인 광고(17.4%) 및 이벤트 체험사업(21.9%)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평소 한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자조금 사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캠페인 광고의 경우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전달방식 또한 친숙해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PPL(24.6%) 또한 한우소비 욕구 증진 및 이미지 개선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우자조금의 필요성



한우자조금의 기여도



▶ 2012년 농가대상 성과분석

대부분의 한우농가들은 한우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우자조금이 이미지 개선 및 소비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소비홍보사업 중에는 TV광고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가교육사업 중에는 한우농가기술포육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국회 정부 한우 소비촉진행사

국회 예결위원회, 농식품부 등 한우농가 살리기 나서

국무총리도 서울 청사에서 홍보행사 펼쳐

한우산업의 안정과 한우 소비확대를 위해 한우자조금과 국회, 정부가 손을 잡았다. 국회 예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은 공동으로 지난 6일 국회에서 한우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와 소비침체의 영향으로 한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희망을 주고, 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본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이군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강우 한우협회장, 강성기 한우자조금위원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우 저지방 부위로 만든 요리 전시를 둘러보고 시식



지난 8월 2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과 할인 판매도 직접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료 값 인상과 소비 침체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

한다"며 "우수한 한우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한우농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8월 21일에는 서울청사 로비에서 한우요리 전시 및 시식, 추석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동필 장관 등이 참석해 포토행사를 갖고, 한우시식회를 진행했다.㉞

한우라면 감사백배

한우자조금, 추석맞이 온라인 이벤트

한우자조금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맞이 한우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홍보하거나 한우를 구입하고 개인 SNS에 인증샷을 남겨 응모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한우선물세트 및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우라면 감사백배

2013년 추석,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를 만들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조금은 특별한 감사의 마음!

이벤트 기간 2013년 9월 2일부터 ~ 9월 15일(일)까지

당첨자 발표 2013년 9월 25일(수)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이벤트 당첨 경험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개인 부담임-부담
영화 예매권은 예매 시 예매 수수료 500원(1매 기준)이 부과 함-부
이벤트 진행 일정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쌀 · 계란 · 설탕도 선물이었던 그때 그시절 관광 · 성형 · 문화행사 상품권 등 이색상품 붐물

명절선물은 뭐니뭐니해도 한우가 최고!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문화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과거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을까? 규격화된 선물세트는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시대에 따라 추석선물도 변한다. 추석선물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궤를 함께한다. 각 시대의 흐름에 따른 추석선물의 변화를 알아본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1950~1960년대

쌀, 계란, 설탕 등 먹을거리

유통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배고팠던 1950~1960년대의 최고 선물은 ‘먹을거리’였다. ‘추석선물세트’ 같은 단어는 생소했지만 명절을 맞아 이웃과 정을 주고받는 문화는 이 때도 있었다. 주로 인기가 있던 선물은 쌀, 계란, 찹쌀, 과일 등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농수산물이었다. 설탕이나 비누, 조미료 등 갖 출시된 생필품도 인기가 있었다. 그 가운데 설탕은 최고의 인기 선물로 꼽혔다.

1970년대

식용유, 치약, 커피세트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큰 변화를 맞았고 선물의 종류와 소비자의 성향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명절 선물에서 생필품이 차지하던 부분은 식용유, 치약, 커피세트 등 공산품으로 넘어갔다. 특히 달라진 문화생활과 경제

수준을 반영해 커피세트의 인기가 높았다.

종합선물세트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석선물세트가 생겨난 것이 이 시기다.

1980년대

선물세트 다양화

경제가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진입한 1980년대부터는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선물세트의 종류도 수천 종으로 다양해졌다. 고기선물세트, 참치선물세트, 통조림선물세트 등 규격화된 구성의 선물세트 상품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백화점의 성장과 함께 상류층의 소비문화가 발달하면서 고가의 고급선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지역특산물 인기…상품권 등장

1990년대는 일반 대중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실을 누리던 시기였다.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실용적 소비문화가 주류를 이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산품 선물세트 대신 인삼, 꿀, 영지 등 지역특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 1990년대의 큰 특징은 상품권의 등장이다.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00년대

선물세트 가격 양극화...
문화행사 상품권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추석선물 시장 자체가 성숙하면서 앞선 시대의 선물세트 상품들이 각각 각각의 고유 영역을 만들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선물과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저가 선물세트가 나뉘었다. 문화소비 욕구가 커지면서 이 시기에는 이전까지 선물로 생각되지 않던 관광, 성형, 문화행사 관람권 등 이색상품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웰빙 반영...프리미엄·기능성 인기

2010년 이후의 선물세트는 전과 비교해 '웰빙'의 경향이 많이 반영됐다. 기상이변으로 신선채소와 과일이 귀해지면서 유기농식품 등이 포함된 '프리

미엄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었고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도 인기 선물의 반열에 들어섰다. 계속된 불황의 여파로 저가의 실속형 추석선물세트 상품이 관련업계 판매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기상이변으로 과일추석 대표

적인 인기 상품으로 제주도 은갈치세트, 특선 암소 한우 세트, 국내산 자연산 송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추석엔 실속 있는 한우선물세트로 가족과 이웃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추석선물세트 할인판매 업체안내

업체명	기간	할인율	업체명	기간	할인율
홈플러스	~9.18	30%	롯데마트	~9.11	5~63%
롯데슈퍼	~9.18	30~55%	GS리테일	~9.18	30~65%
서원유통	~9.18	30~56%	롯데백화점	~9.18	30~33%
옥션	~9.18	30~56%	지마켓	~9.14	30~55%
다하뉴	~9.18	36%	초원육가공	~9.18	23~50%
음성진하뉴	~9.18	20~26%	청풍명월향수한우판매장영농조합	~9.18	13~24%
청풍명월클러스트	~9.18	21~50%	돈우	~9.18	22~50%
완주한우협동조합	~9.13	25~50%	칠보청정한우	~9.15	30~50%
화산한우영농조합	~9.14	28~50%	소야영농조합	~9.15	30~50%
전북한우협동조합 총체보리한우직판장	~9.11	30~33%	산위토종한우 임봉찬목장	~9.12	23~50%
정읍산외일품한우백화점	~9.12	23~50%	우미 한우촌	~9.11	30~50%
단풍한우마을정육식당	~9.12	23%	이상촌농업회사법인	~9.15	9~33%
여수한우협회직영판매장	~9.18	28~55%	대숲포크	~9.18	33~50%
나주축산한우암소직매장	~9.18	29~52%	의성서부한우회 마늘소영농조합	~9.18	30~50%
군위 이로운한우 영농조합	~9.18	30%	금강송한우영농조합	~9.18	30%

*업체별 할인품목은 상이함



한우자가소비 안내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이란?

-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판매목적이 아닌 소비자와 농가가 축협·한우협회 시군지부에 도움을 받아 도축·가공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도축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 자가도축은 도축장을 통해 도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대상

- 한우 공동구매(최소 5명 이상) : 자가소비자
※ 생축의 직접 구매가 어려운 소비자들은 축협·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농가를 알선하여 참여 유도

지원기간

- 2013. 8. 29(목) ~ 12. 20(목)

지원금액

- 자가소비자 : 최대 388천원/두
(도살해체수수료·가공·배송비 실비)
- 축협·한우협회 시군지부 : 12천원/두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알선 및 정산수수료 등)

지원조건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만 지원
- 도축·가공 및 배송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지원
※ 단, 가공 후 자가배송 시 배송비는 미 지원

사업체계도



문의처

- 전국 축협 및 한우협회 시군지부 담당자
※ 구비서류 양식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시식회



8.1~4 한우시식회(강원 철원)



8.8~9 경기농업경영인대회(경기 고양)



8.31 고추구기자축제(충남 청양)



9.5~6 우리농수축산물페어(서울)

정책설명회



8.22 강원 홍천 정책설명회



8.30 강원 횡성 정책설명회



애독자코너

한우농가 대잔치인 한우인의 날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9일 한우협회 창립기념식이 같이 열려 많은 한우농가와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 및 축사 등이 진행됐고, 더불어 한우산업 종사자간의 정보교류의 장인 기자제 전시회도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추석을 맞아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도 함께 진행해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한우시식회 및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우인의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한우인의 날은 무엇을 주제로 했을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8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관범(충남 부여군), 장지애(충북 영동군), 나승수(전남 담양군),
이병수(경기 김포시), 김복영(강원 평창읍), 석수경(경북 상주시)

한우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넉넉한 정이 오가는 우리의 명절
우리한우로 정을 나누세요!!

